

제426회 국회  
(임시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 개선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토교통부 소관
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 상정된 안건

1. 간사 개선의 건 ..... 2  
o 간사(복기왕) 인사 .....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4  
가. 국토교통부 소관
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 4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으로 인하여 한동안 위원회 활동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여야를 넘어 협력과 숙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정책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침수,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건설 현장과 도로, 철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자로 국민의힘의 권영세·서범수·윤영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김종양·배준영·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사실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기를,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1년 있다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에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저는 더없이 기쁘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우리 초선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프로필 볼 것 같으면 주로 경찰 관련된, 경찰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인터폴 총재했었고 등등 그랬지만 제가 사실 경찰로 전직하기 전에는 1991년도 근무했던 부서가 교통부였습니다. 교통부인데다가 또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에 제가 근무하게 돼서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워 가지고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어떤 역할 특히 또 야당 위원으로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토교통 관련 현안도 많은데 제가 기재위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공부하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서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간사 개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왔던 문진석 간사님이 사임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기왕 위원님을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문진석 위원님에서 복기왕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기왕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문진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님들 그리고 또 박상우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간사직을 맡으면서 2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고 북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제가 원내 수석을 맡으면서, 운영 수석을 맡으면서 간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법안, 싱크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동의를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법안, 10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권영진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잘 관장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의 공도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임하는 복기왕 간사님께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민생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의 전통을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간사(복기왕) 인사

(10시12분)

○**위원장 맹성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복기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 왔기 때문에 원래 전반기 2년은 좀 배우고 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도 간사를 맡게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토 상임위는 여야와 상관없이 일하는 역할을 지난 1년 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우선 권영진 간사님 잘 모시고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민생, 부동산,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님하고 이종욱 위원님은 예결위에 보임이 되셔서 오후부터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0시14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건설투자 감소,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회복시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마중물이 될 세출예산 20.2조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성장 둔화, 기업 실적 부진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10.3조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2조 3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에 26개 사업, 1조 6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여건이 양호한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준공 지원, 노후 철도 및 공항시설 안전 강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지원 등 SOC 투자 분야 23개 사업, 85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안심환매, 위기사업장 특별보증 및 앵커리츠 출자 등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사업, 8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개 사업에 37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총 15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타당성조사,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11개 사업, 1조 2449억 원은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감액 조정한 사업은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적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추경안 심의가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편성 배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전망 변화를 세입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안의 총규모는 30.5조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증액하고 세입 감액 10.3조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19.8조 원, 지출 구조조정 5.3조 원, 외평채 3조 원, 기금 가용재원 2.5조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금년 집행 가능한 28개 사업에 2조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여건을 감안해 11개 사업, 1.2조 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 재원에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SOC 건설 관련 8575억 원, PF 지원 관련 8000억 원, 주거안정 관련 3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 중단, 사업비 분담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SOC 예산 9684억 원, 용자 수요가 감소한 주택기금 27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액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조 6921억 원입니다. 일회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안 세출은 순수 사업비만을 포함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64억 원 증가한 23조 3813억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1060억 원, 감액 규모는 2188억 원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1개 노선에 80억 원, 일반국도 건설 2개 노선에 860억 원, 민자 고속도로 건설 1개 노선에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인 포항-영덕고속도로 사업과 지자체 재원 분담 협의 지연 중인 동광주-광산고속도로 건설사업 2건에 대해 21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철도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6686억 원, 감액 규모는 2273억 원입니다.

고속철도 건설 2개 노선에 2000억 원, 일반철도 건설 2개 노선에 400억 원, 철도안전 강화사업에 179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남부내륙철도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올해 집행이 어려운 5개 노선 사업에 대해 22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80억 원, 감액 규모는 5224억 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제주공항 관제탑 공사 등 일반 공항 인프라 확충에 50억 원, 드론종합 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 계약 협상 중단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52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PF 우수사업장에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3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부문은 8개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비, 보상비 등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저소득 청년 15만 7000명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에 5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추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6042억 원이 증가한 36조 664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주택계정입니다.

증액 규모는 8208억 원, 감액 규모는 2765억 원입니다.

PF 유동성 지원을 위한 미분양안심환매 사업에 3000억 원,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전세임대 용자 32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사업시행자의 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용자사업에 27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도시계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기금 용자와 민간은행 용자 이차보전을 위해 5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는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국토교통부-LH-리츠로 이어지는 단계적 집행 구조와 공공·민간 등 다양한 자금제공 주체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업 지원 방지 및 사업성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동 사업의 지속적인 수요와 정책 효과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금년도 이월 예산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번,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4년간 1만 호를 한시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1호당 매입비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1000호 이상의 추가 매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매입 여력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에 유동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은 중소건설사의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PF대출 보증상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성 평가와 지속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공항 관제동 신축 사업에 추가 공사비를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 이후 이월 또는 불용 등 사업 지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입니다.

신안 압해-화원 일반국도건설 사업과 태안 고남-창기 일반국도건설 사업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각각 본예산과 비교한 증액의 규모, 토지 보상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8쪽 하단입니다.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과 일반철도 안전 및 시스템개량 사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전기설비개량, 선로전환기개량 및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의 금년도 실집행을 상황을 고려해서 회계연도 내에 차질 없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사업은 충북 오송에 설치되는 제2관제센터건설 사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에 비해서 센터 건축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제시스템의 적기 구현을 위해서 센터 건축 부문에 대한 일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부지 확보에 필요한 보상비를 추경안에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민간사업자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지 확보와 더불어 민간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조속히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입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 사업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부산 사상-하당간 도시철도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등 4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지방비 실집행 실적이 국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방비 집행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적기 개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교섭단체 간사님과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12시 전후 좀 지나서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명으로 추정했던 신청자가 한 15만 7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건을 많이 완화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은 요건을 완화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서울시는 150% 이하 무주택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2027년도까지 한시사업인데 이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취지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 부도 아마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지원 항목이 있고요. 이거는 청년만 따로 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은 주거급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일단 요건 완화해 주시고 계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공공이 아닌 민간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결국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거 안정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700억 또 2023년도에도 2200억, 2021년도에는 거의 8000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3200억을 추가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세임대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의 빈틈을,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나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나 집행 문제는, 사실은 전세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해당되는 집을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지 이 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으로 한 것은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

○**윤종오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입임대 비중이 줄어들고 전세임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 확대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중물 리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부동산 PF 지원은 주로 보증이나 대출이었는데 이 사업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사실상 직접 선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존과는 아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유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급이 초기 토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토지 확보 없이 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사업자들이 토지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리의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땅도 잘 확보가 안 되고 또 분양가도 높아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우려하는 것은 민간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데 그 부담을 공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익이 생기면 그 원금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그때 물론 회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익이 생기면 개인이 다 가져가고 손해를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다 떠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결국은 주택사업을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LH 같은 공공 주체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 건설사업자든 충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큰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 감독 또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선거 등의 이유로 우리 위원회가 많이 못 열렸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그동안에 미뤄졌던 민생 과제들, 숙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다른 얘기는 다 빼고요.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가 1차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중요한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공영제 광역버스에 대한 내용 이거든요.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감가상각비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정비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주니까 사업자들이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100개가 넘는 노선을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들이 노선을 포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요.

2003년에 한 광역버스 노조파업 당시에 170대가 멈추면서 서울, 경기 오가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엄청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올해, 내년 갱신해야 하는 노선이 141개에 이른답니다. 운행하는 버스가 1473대고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걱정이고.

대광위원장님,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아마 원래 본예산에 358억인가 350억인가 했다가 이번에 대광위에서 59억 정도로 좀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아는데 또 반영이 안 됐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업계하고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에 공통 면허조건 할 때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업계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그 대응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일단 대광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시행 한 5년 차 되고 첫 갱신이에요. 장관님, 이거 아마 적정성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안태준 위원** 이게 실제로 걱정한지…… 지난해 말에 언론 지적도 조금 있었습니다. ‘운행할수록 적자다’ 이러면서 준공영제 다 포기하려는 시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는 계속 그 사업자들의 방만경영을 이유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이거는 감시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국토부도,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9년간 지원이 멈춰 있거든요. 그동안에 생활물가 오른 것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의 시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공공요금 동결 차원에서 지금 묶여 있는데 위원님 지적과 저희 국토부 실무진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태준 위원** 예, 면밀하게 스크린할 필요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매입 목표가 한 7500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952호 매입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지난해 11월에 개정안 통과될 때 위반건축물이나 다중주택, 비주거용 시설까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상복구 비용이나 수선과 같은 리모델링 비용 등이, 추가 공사 비용도 받

생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LH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제가 LH 편을 무작정 들자는 편은 아닌데, 호당 198만 원 정도 돼서 약 한 148억 정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의 기금사업으로 전세임대를 3000호 확대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경상보조 비용, 부대비용이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또 한 35억, 부대비용이 한 458억 여기다 3000호 추가하면 35억 이래 가지고 약 500억 정도 또 부대비용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LH 얘기를 하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공공이 선도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LH의 체질 개선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당연한 면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부담이 아닌가, 이걸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아마 정기보고를 내일 회의에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법 통과 이전에는 저희가 각급 법원에다가 제발 경매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빨리 경매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털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매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일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수리비 등 여러 가지 부대비 또 요건뿐만 아니고 전세임대에도 사실은 부대관리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제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상세히 들여다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아마 충분한 논의와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장관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철도 관련 공약들 다 잘 챙겨 보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군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성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데요. 안성을 지나는 잠실,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민자철도를 경기도 SOC 공약으로 또 안성 첫 번째 공약으로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축 중심의 성장 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중부축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작년 12월 중순쯤에 국토부에서 KDI로 민자 적격성조사의뢰하기로 했던 걸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지금 반년째 KDI로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정도 넘어갈 예정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업 시

행을 희망하는 컨소시엄과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고 있고요. 조만간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조만간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예, 지난해 11월 28일 날, 내란 전인데 제가 장관님 찾아뵙고 드렸던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노선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충남 북부지역 또 경기 남부의 만성적인 동서 통행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38국도 우회도로 신설 연구용역비—많지도 않습니다—한 2억 정도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38국도 노선 구조도입니다. 충남 북부인 당진, 아산 또 경기도 평택까지 합치면 서쪽으로 총 11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천, 여주, 충주에서 53만 명 도로가 있는데 남북 축으로는 45번 국도, 23번·70번 국도…… 여러 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는 38국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4차선 기준으로는 4만 대, 6차선 기준으로는 6만 대면 국토부에서도 교통량 포화 상태로 본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런데 저 38국도는 이미 10년 전에 5만 대가 초과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일평균 5.3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저 38국도 하나 가지고 저 많은 인구들이 동서 축을 이용하고 있어요.

장관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38번 국도를 옛날부터 굉장히 잘, 자주 이용을 하고 굉장히 저쪽 사정을, 주변도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윤종군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38국도 확장 공사도 10년 넘게, 물론 작년부터 해서 장관님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가지고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6차로밖에 안 됩니다. 곧 포화 상태, 벌써 포화 상태기 때문에 또 우려가 돼요.

PPT 다시 띄워 주십시오.

거기다가 안성 남부 쪽에 반도체 소부장 국가산업단지인 동신산업단지가 지정이 돼서 2030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0만 평 정도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 동서를 잇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8국도 우회도로, 충남 북부지역 또 경기 남부지역 동서로 관통하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차 도로계획 여기서 반영이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까지 포함, 같이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2억 정도 하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 왔는데 이번에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재정 당국의 입장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정 노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따로 두는 것은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특정 도로, 어떤 게 낭비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지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정 노선만 떼어 가지고 별도의 용역비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시급성이 요구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군 위원 말씀하신 건 재정 당국의 생각인 것 같고 장관님이나 국토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특수성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호남선 철도 지하화를 대전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추진 TF를 구성하고 GTX, 경부선 등 지하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서울·경기·인천 그리고 국토부, 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논의 중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그래서 호남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도권 사례와 같은 전담 TF 구성 계획이 있는지 또 향후 기초조사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 일정이 있는지.

또 호남선 고속화 사업도 있어요, 호남선 고속화 사업. 지하화 말고 고속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압니다.

○황운하 위원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고속화 사업이 먼저 진행

된 후에 그다음에 또 지하화가 추진된다면 고속화한 다음에 레일을 다시 깎 다음에 지하화를 또 해야 되는,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애초부터 고속화 사업 구역·구간을 지하화로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짧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질문이 많아 가지고 짧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TF 문제는, 수도권은 복잡하게 수도권 철도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노선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생각이 다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시하고 저희가 늘 면밀하게, 지금 대전시와 국토부가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TF 같은 것을 따로 안 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 확정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속화 사업 부분은 거기에 철도 지하화까지 붙여서 좀 더 오른쪽으로 연장을 해서 가는 계획을 하게 되면 고속화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왜냐하면 빠듯하게 고속화 사업을 B/C를 맞춰 가지고 예타를 통과시켜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연장을 더 늘이고 지하화까지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하게 되면 먼저 어렵게 통과한 그 사업이 다시 원점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고속화한 다음에 또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면 고속화한 사업의 일부는 중복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앞에 통과한 사업이 다시 또 보류가 되거나 재검토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것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중복 공사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드린 말씀이었고. 그것 때문에 또 늦어지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고.

대전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대광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황운하 위원 이게 지난 21년에 국토부에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 사업에 선정됐고 23년에 예타 대상에 선정됐고 24년 10월 달에 통과했고 금년 4월에 행안부 중투심 통과해서 필요성·경제성을 다 인정받은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예타 통과가 작년 10월에 됐는데 작년 6월 이전에만 됐더라도 예산 반영이 됐을 텐데 10월에 되다 보니

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이 될 때까지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집행 가능한 SOC 조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이종욱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총량 문제인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조 7000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국토부 소관 예산 같으면 2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1.2조 원 감액을 하면 실제로는 국토부 전체로 한 8000억 정도 증액되는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 SOC 분야로만 보면 오히려 한 1700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건설 경기 측면에서 총량 측면에서 SOC 쪽에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조그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들 한 30억, 50억 그런 사업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저희들이 추경 하면 하던 게 있거든요. 도로유지보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추경 때 해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은 안 됐더라고요. 총 세입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재부랑 조금 더 추가 협의를 해서 이런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한 추경을 반영하는 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1차 추경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저희 국토부 입장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다음에 PF 사업장 지원 예산 8000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00억을 투자하면 총 유동성을 한 5조 4000억 정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최근에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보면 총 4조 4000억을 HUG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형 사업을 시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실은 HUG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억을 출자하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를 아마 500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HUG의 체력 보강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국 HUG에 출자 4000억 원, 용자 1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약간 사업 성격보다도 HUG의 자원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같은 경우에 출자 2000억, 용자 1000억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 50%로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회수를 했더라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업구조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이걸 출자를 2000억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자본 보완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일부를 아니면 전액을 용자로 돌려도 가능하단 이런 것을 저희 소위 과정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 위기사업장 특별보증에 대해서도 2000억 원 출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시공 순위 100위 미만이어야 되고 중소 건설사, 우량 PF 사업장,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국토부에 문의를 해 봤더니 현재로는 딱 어떤 게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지정을 못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지원 대상 조건을 좀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돈은 못 쓰이고 출자로만 지원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출자를 한 1000억 정도 줄여서 SOC로 돌릴 수 있으면 기재부랑 그렇게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재정 전문가답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HUG가 급급하긴 하지만 출자성은 아까 도공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하고 이것을 돌려서 일반 SOC 사업으로 좀 더 쓰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기초실장님께서 개요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5페이지 감액 관련된 내용들 보고 있으면 저희 광주시 관련된 도로 감액이 367억이 됐는데, 총 8개 사업에서 1조 2000억 상당이 감액됐는데 다른 감액 사업들을 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든지 입찰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검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사업비 분담 협의·조정이 좀 지연돼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광주시에서 지금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전향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분담금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감액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실제로 제가 18일 날 세종 정부청사 방문해 가지고 백원국 차관님과 이야기하고 기조실장님 뵙고 여러 과장님들까지, 주무관까지 다 뵙고 말씀 나눴다는 얘기는 혹시 말씀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

○정준호 위원 거기에서도 국토부에서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분담금을 일부라도 납부를 한다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광주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 봤느냐라고 여쭙봤더니 몇 개월 전에 광주시와 도로공사와 주고받았던 공문을 근거로 확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신 것 자체는 저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 추경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국토부에서 광주시의 의사를 확인을 명시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감액 사유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좀 다시 예산 복원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저도 이 감액안을 보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이 내용을 좀 압니다, 제가. 다른 이유로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감액을 하면 지역민의 반발도 굉장히 셀 텐데 무슨 사연이 있냐고 그랬더니 쪽 아시는 내용을 다 다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 주신다면 추경 확정되는 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충분히 다 재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적극 요청을 하는 사안이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지역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광주 쪽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일본의 도요타와 관련된 우븐시티를 모델로 해 가지고 광주에 국가 모빌리티 시범도시를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광주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AI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좀 책정이 됐으면 하는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10억 정도라도 책정이 되면 좀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남부내륙고속철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김천에서 경남 서부지역 거쳐서 제 지역구인 고성·통영 그리

고 거제를 최종 종착지로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2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다. ○정점식 위원 이 사업은 최초에 4조 9000억 정도 예산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라서 우리 경남 특히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등이 증액되면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특히 국토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심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총사업비 6조 6900억, 그러니까 최초 예산보다 1조 7000억이 증액돼서 2025년 말에 착공을 할 거다라고 올해 예산이 다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경에서 보니까 예산 중에서 500억 원을 감액한다라는 게 정부 추경안인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질적으로 이게 감액되는 게 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고, 12월 말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 착공하는데 암만 돈을 미리 막 주더라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원래는 이게 한 7월 말 정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을 해 놔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12월 말로 완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공사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 뜻입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다시 또 예산 중에서 500억 정도를, 공사비 400억, 용지보상비 100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추경예산안이지요.

만일 이렇게 6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게 집행률이 한 23%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500억 가까이 예산이 감액돼 버리면 2030년 완공 목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경남도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국토부의 입장은 불가피하게 설계가 늦어져서 금년도 착공 예산은 이대로 놔두면 이월을 하거나 해서 또 사실은 결산할 때 저희가 이렇게 왜 제대로 집행 못 했냐는 말씀도 지적받고 또 가능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쓰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내년도 이후에는 제대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말씀하신 30년 착공은 꼭 지키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내부의 분위기고 방침입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예산이 6조 6900억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결국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매년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1조 원씩 이렇게 투입이 돼야 2030년 말 준공이 가능하다, 개통이 가능하

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 말 개통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 국토부 직원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꼭…… 사실은 경남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 교통망이 전혀 없어서 이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국토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 책정 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저도 진주에 근무를 해 봐서 이 철도가 갖는 그 지역에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편성 취지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조인 통합과 실용에 따라 편 가르기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으로는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토부 소관 예산은 특별한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집행에 또 효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편성되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서는 SOC 사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SOC 분야인 교통시설특별회계만 살펴보더라도 장관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에서 교통은 6235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9685억 원이 감액되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SOC 예산이 3530억 원이 줄어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오지만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아까, 나중에 부산지역 위원들이 질의하실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방금 정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렇게 수치만 표기되어 있지 실제로 투입이 사실상 어려운 돈들을 구조조정해서 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당초의 어떤 그런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심사 과정에서 SOC 감액이 아니라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은 회복

시켜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서도 보면 SOC 사업 중 연내 100% 지출이 어려운 사업을 선별해서 조정했다고 그렇게 지금 밝혔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정부 발표처럼 국토부가 사업 선별과 조정을 충실히 균형 있게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이번 추경안에서 교통 분야 SOC 감액이 영남지역이 얼마나 감액이 되었냐 하면 7545억 원으로 77.9%입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은 367억 원으로 3.8%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을 보면 영남지역은 300억 원으로 4.9% 증액이 되었고요. 호남지역은 2204억 원으로 35.8%인데 이것이 균형감 있게 충실히 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걸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의 감액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할 부분들이 만약에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든 안 그러면 실수든 누락된 게 있으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제가 증액·감액 이 분야를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 정신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갖다가 전 국민들이 그대로 알았을 경우에 긴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와 관계없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산은 정치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의 많은 부분이 가덕도신공항 단일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지금 형편을,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좀 납득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수렴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물론 실무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공개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것 하면서 지자체에서 건의받고 하는 내용은 시급성 때문에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면 또 곧 3차 추경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도 충분히 잘 수렴하셔 가지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종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설 위원님.

○이건설 위원 경기 부천시병 이건설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가로주택이 2335개소고 경기도가 568개소, 그중에 또 부천시가 271개소나 됩니다. HUG에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에 해당하는 추가 사업 대상에 대한 승인을 추경 전에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물량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5월 기준으로 본예산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집행률이 HUG 자금이 97.1%로 사실상 전액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556.1억 원 용자, 이차보전으로 42억 8500만원이 책정돼서 올해 HUG에서 승인했던 사업이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된 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UG가 이미 승인한 것을 본예산 때 반영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가 HUG가 이미 승인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민생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것들이 편성이 안 되고 뒤늦게나마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각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설 위원 다른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3년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현대로템의 고속철 수주 과정에서 명태균을 통한 청탁과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2022년 10월경에 최 아무개라는 현대로템 상무가 명태균에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경쟁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보도되었고 이후에 2023년 현대로템은 3월에 코레일, 4월에 SRT 고속철도차량 수주에 연이어 성공을 했습니다.

코레일 사업 수주 당시 3월 22일, 최 상무가 명태균에게 ‘마음 써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 SRT 사업 수주 당시 4월 20일경 최 상무가 명태균에게 ‘존경하는 명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관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국토부에서 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 보도가 5월 19일, 16일에 또는 3월 달에 또 있었다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보도 당시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현재 안 납니다. 안 나고, 당연히 저희가 부처 차원에서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국토부에서는 자체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게 지금 SRT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건태 위원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태균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사가 기준 점수 85점에 미달해서 탈락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 점수하고 평가 기준, 심사위원 선발, 이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저희가 판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박상우 장관님, 진현환 차관님, 백원국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가덕도신공항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결국 입찰공고 이후에 1년 이상의 세월 동안 4차까지의 유찰, 그 이후에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절차 진행, 그런데 현대건설이 6개월 만에 수의계약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 절차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행태를 보면 저는 여전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입찰공고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84개월이라는 공기를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국토교통부는 해상 활주로 부지에 마흔두 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은 기본설계를 하는 6개월 동안 활주로는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마흔두 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고 84개월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한 곳도 조사를 하지 않고 108개월을 제안하면서 빠져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항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져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이러한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향후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그 답변드리기 전에 어쨌든 지금 가덕도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1년 이상 지연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 등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건설이 뻔뻔하게도 최근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벅스코 제3전시장—공사금액 2500억짜리—공사에 참여 의향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지금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이러한 점도 참작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향후 로드맵을 빨리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 관계 전문가들과 또 저희 기술자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 사항들은 제가 결심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실무적으로 제가 우리 실무진들을 독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그러면 국토부의 공식적인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답변으로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야 할 게 제가 국토부와도 협의를 하지만 기재부와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기재부에서도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 감액되었던 예산을 내년에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도 최대한 많은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조만간에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 다 다시 구성이 될 텐데요. 관계



없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바람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제고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실무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님, 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 장관 또는 이 정부를 대표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단단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갑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저도 가덕도신공항 문제 때문에 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점을 확인 좀 하려고요.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 1년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흘러나오는 대안의 문제가 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재입찰을 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입찰 조건이 완화되면 결국은 공기 문제와 예산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물론 공사 내용, 공법의 문제는 시공사가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1년을 허송세월 보냈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재입찰의 조건이 기존의 조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가지 업계 간담회도 지난주인가 했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 업계의 의견만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전문가 그룹의 중앙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도 보면 공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건설업계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입찰에 참여하고 의향이 있는 어떤 건설사들도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업체들도 보면 도저히 지금 현재 84개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공기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 명분이 맞춰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김도읍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현대건설 참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는 가해야 되지요.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재입찰 조건을 완화시키고 또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를 반영시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것 맞춰 줘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되면 현대건설도 재입찰에 참여시킬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국토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반적인 사항만, 지금 현황만 이야기가 되었고……

○**민홍철 위원** 일반 사항만 했다 이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

○민홍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원래 사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검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더라도 공기는 2035년에 맞출 수밖에 없다, 거의 10년, 9년 6개월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치적인 결정, 현대건설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요. 지역의 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그래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입찰을 했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까지 변경을, 손을 대야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에 손을 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을 댄다면 또 공기가 연장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현재 입찰했던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공기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그래서 백원국 차관께서는 주무차관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현재 입찰 조건하고 입찰 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내용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표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신정부의 지휘부가 구성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게 지금 대책사업을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책임져야 돼요. 국토부도 이 책임이 있습니다. 업계만 이게 책임진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아무 말 안 했어야지 뭘 업계가 책임이 없어요? 현대건설 책임이 100%지, 지금.

.....

○민홍철 위원 아니, 업계에도 책임이 있고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도읍 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이 처음에 수의계약 절차에 안 들어왔어야지.

○민홍철 위원 아니, 질의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 현대건설이 지금 1년 이상……

○민홍철 위원 아니 김도읍 위원, 언제부터 끼어들었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현대건설이 처음부터 거기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야지요.

○민홍철 위원 아니, 내가 현대건설이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홍철 위원 아니,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사과하세요!

○김도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아니,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김도읍 위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민홍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고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 현대건설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왜 얘기 안 해요?

○김도읍 위원 어디서 배우다니요? 어디서 배우다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현대건설이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잖아요.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 건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내가 현대건설에 가장 큰 책임과……

○김도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김도읍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장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정말 지금……

○위원장 맹성규 자……

○민홍철 위원 이것 사과시키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민홍철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사업 관리를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제가 김도읍 위원님 질의의 답변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게 이렇게 1년이나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민홍철 위원 오늘의 이 김도읍 위원의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아무리 자기 의견과 다르다 하고, 자기 의견하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엄격하게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면서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여 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신상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이 문제가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인지하고 그냥 떠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다음 집행부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 1년 연기하고 2년 연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서 이게 지금 생각한 대로 과연 지역 주민의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집행부는 이제 떠난다고 해도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 상황이 이것 뭐 그냥 사업비 얼마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 죽 연장을 하고 안 되는 것 보완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책임 문제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명확한 계획 이런 것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거기에 맞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님 지적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

○김도읍 위원 민홍철 위원님께서 사과를 꼭 받으셔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대건설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활주로나 앓을 부지에 마흔두 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안한 84개월을 용인을 하고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그 해당 해상, 해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곳도 하지 않고 108개월을 주장을 하면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년 이상의 허송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홍철 위원께서 2035년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계획하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2029년 개항으로 변경되었다, 지금 현대건설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 그 기본계획도 현대건설이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면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정부 문건에도, 그걸 이유로 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용납할 수 없고 더더욱 더 우리 부산시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홍철 위원** 아니, 이것은 토론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의 취지는 당연한 거고.

민홍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민홍철 위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참 김도읍 위원 의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재입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저는 기본 조건을 지켜라 이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기본 조건을 변경하면 결국은 공기 문제를 손을 대야 되고 비용 문제를 손을 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재입찰을 해 버리면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거기에 완전히 말려들어가 버린다는 이 결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현대건설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사타 문제가, 그 연구 검토보고서가 35년까지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것을 보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대건설이 그것을 다 알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 버렸는데 그것 관리를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어느 입장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자꾸 언론에서, 또 보고도 제가 받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거기에 말려들어 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민홍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각 대안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객관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잘 다듬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당정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국토부의 용역 집행 과정에서 부실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얼마든지 그런 책임은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 문제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문제가 먼저예요, 국토부가 과연 사업 관리를 적절하게 했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현대건설을 포함해

서 다 계약을 알고 들어와서 그냥 나중에 빠져나가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무엇이나 하는 의사결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뒤에 계신 실무자들은 지도부가 떠난다고 해도 다음 지도부가 새로 오면 당연히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되고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양 위원님이 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대전 중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거기는 호남선 국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굴곡노선을 펴는 고속화 사업 아까 어느 모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그 현황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심 구간의 국철 지하화 사업 있지요? 이것은 사실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철도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차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전조차장인가 그 부지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구축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국철을 하는 사업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기존의 국철을 도시철도, 그러니까 도심 구간을 이용하는 철도 사업이지요. 그게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대전도, 그게 청주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추진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정교하고 한밭대교,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인데, 지금 20억인데 이게 지금 담겨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추경안에는 노력했습니다마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것은 사실 이 설계비가 20억인데 이것에 따라서 공사가 1년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물론 국가의 어떤 방침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올려 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어차피 기재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한번 올려 주시면 어떻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억 때문에 공기, 공사가 1년 늦어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예결위 가면 예결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도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정안을 보니까 그야말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예산 1821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예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에 1350억, 2025년에 182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 이 사업에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감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공사비 불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서 부처 간 협의 중이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것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업 연내 착공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벌써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사비 불용을 예상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 이것은 사업비를 쓸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횡단대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시간에 이번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니다. 2008년에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250만 경북인들의 염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염원 사업을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국민 용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십수년간 기다려 온 이 숙원 사업의 예산을 그냥 살점을 뜯어내듯이 한 방에 잘라 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용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온 경북인들 또 포항 주민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사업 반드시 복구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가 원해서’ 이게 아니라요 정부 스스로 수립한 국토계획의 일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을 보면, 먼저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37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때 명문화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이렇게 분명히 남북 10축의 영일만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국토부에

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6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예산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기간 내내 포항시 곳곳에 이렇게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이고 또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적극 추진에서 적극 철회,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경북 포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2023년에 50억 확보했고 24년 1350, 2025년 1821억 이게 다 반영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드립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공사 예산 전액 원상회복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입장 선회를 통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큰 노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마이크 한 10초만 더……

○위원장 맹성규 예, 쓰세요.

○김정재 위원 나오지 않아서……

○위원장 맹성규 1분 드리세요.

○김정재 위원 이 사업을 분명히 계속하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즉 지금까지 시작된 또—이전 정부지요—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올해도 예산을 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쓰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중단 없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또 장관님께서 다음에 하실지 아니면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 누구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강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지



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고 이미 투입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노선을, 교량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있는데 이 과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김정재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이게 지금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포항·영덕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잘……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평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게……

○김정재 위원 제 질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에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명확하게……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의를 왜 강평을 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지금 이게 강평이에요?

○김정재 위원 지금 강평하고 있으시잖아요. 오해라니요.

○위원장 맹성규 지금 명확하게……

○김정재 위원 제 질의가 오해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정재 위원 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장 맹성규 제 권한입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요, 하세요. 저도 계속할 테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시면 저는 다시 할 거예요.

○이건태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

○위원장 맹성규 제 권한이에요.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하십시오.

서로 예의지요.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예의지요. 진행자가……

○윤종군 위원 김정재 위원님이 예의 얘기하실 자격이 있어요?

○김정재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왜 평가를 하시냐고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해서……

○윤종군 위원 김정재 위원님은 이재명 이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김정재 위원 왜 안 올려요?

○윤종군 위원 총알도 아깝다면서요!

○김정재 위원 총알이 아깝다는 게 어때서요?

○윤종군 위원 그런 말까지 해 놓고…… 정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김정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김정재 위원 한국말 이해 못 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자, 제가……

○김정재 위원 총알 쏘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총알 쏘 일.

○윤종군 위원 본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김정재 위원 총알 쏘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윤종군 위원 적당히 하십시오, 좀 적당히.

○김정재 위원 오버하지 말라고요.

○윤종군 위원 적당히 하세요.

○김정재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총이나 쏘고 이러는 사람들입니까? 오버하지 말라고요.

○윤종군 위원 총알이 아깝다 그런 소리를 해 놓고 나서.

○김정재 위원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같은 상임위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부끄러워요.

○김정재 위원 샷대질하지 마세요. 여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윤종군 위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이건태 위원 본인이 먼저 하셨잖아요, 본인이.

○김정재 위원 대선은 끝났어요. 대선이 끝나고 승리했으면……

○윤종군 위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김정재 위원 승리를 했으면……

○이건태 위원 본인이 먼저 하셨잖아요?

○김정재 위원 아니, 그래서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윤종군 위원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김정재 위원 제 말뜻을 오해하는……

○이건태 위원 무장한 군인이 국회 들어오는 게 안전한 대한민국 맞아요?

○김정재 위원 해독을 못 하는 위원들이 문제지요. 지금 영일만 대교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입니까?

○위원장 맹성규 김 위원님,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왜……

○윤종군 위원 민주당 위원들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거나 하세요, 좀.

○김정재 위원 참지 마세요. 참지 않았으니까 고발했잖아요. 참지 마세요. 왜 참습니까?

○윤종군 위원 알았습니다. 안 참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말도 이해도 못 하면서.

○윤종군 위원 앞으로 안 참을게요.

○김정재 위원 참지 마세요.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그러니까 제 질의의 초점은……

○김정재 위원 우리는 얼마나 참는데요.

○윤종군 위원 누가 먼저 했는데요?

○위원장 맹성규 김 위원님, 제 질의의 초점은 김 위원님 질의를 강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장관의 답변하고 김 위원님 질의하고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

○**김정재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맞게 듣고 있는데 왜 위원장이, 제가 질의하고 장관하고 얘기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잘못 판단했는지……

○**김정재 위원** 잘못 판단하셨어요, 리스닝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민생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그것이 마치 예산 삭감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장관 답변은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김정재 위원** 이해를 잘못하셨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장관님은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포항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할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시 확인할게요.

이 사업 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당연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왜 재검토가 필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영일만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횡단할 거냐 하는 최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그러면 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지금 예산은 못 쓰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올해 공사비 예산인데 그 대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안을 찾으면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장 맹성규** 추경이 없더라도 올해 예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추가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연말에 불용 내지는 이월이 됐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불용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그게 지금 예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 재원을 그렇게 쓰는 거지,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여쭙보려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거는 국토부장관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인 국가재정을 운용하시는 부서에서 답변할……

○**위원장 맹성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김 위원님은 마치 지금 이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확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거나 추

가로 장관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세요.

○**김정재 위원** 예, 3분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정재 위원** 저는 이 질문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박상우 장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상우 장관님은 충분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하였고, 무척 반가운 것은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올해 사업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거를 다른 민생에 쓴다라는 것은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장관한테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예요. 제 생각이요,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거나 새로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게 꼭 행안부의 예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안부 예산을 삭감하고 행안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처에서 어딘가에 불용을 하거나 뭔가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걸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예요.

분명한 것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삭감은 여러 사업에서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뺐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뺐든 어떤 사업이든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지원금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국토부장관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별 관계가 없고요. 그 얘기가 불편하게 들렸다고 해서 위원의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장관에게 묻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국회라는 것은 질의응답을 정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동안 저에 대한 개인 감정을, 대선 때 개인적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강평은 또는 추가질의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말씀……

○**이건태 위원** 이번 추경은 경기를 부양하고 그간 돌보지 못했던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경입니다. 이 추경 논의는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 살리기 위해서는 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김정재 위원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은 이 추경이 마치 영

남의 예산을 줄이고 호남의 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았는데 여전히 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마치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본인 지역구의 어떤 예산을, 그럼으로써 줄여서 그 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국토위원회가 그간에 민생위원회로서 가급적 정치적인 쟁점화를 피하면서 운영했던 그런 전통과 관행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팩트에 어긋나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위원회가 비생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아마 판단은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믿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추경을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과정이나 내용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경기 용인시를 손명수 위원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 살리기도 당연히 주안점이 두어졌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6월 22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출시한 거는 뉴스를 보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사이버캡이 아니고 기존 모델 Y로 출시를 했습니다. 10대를 했는데 조만간 1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구글 웨이모가 지금 1500대 정도 이미 미국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샌프란시스코 전체 차량 호출의 25%가 웨이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한이 사실상 전 도시가 자율차 도시가 된 것은 들으셨지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못 가 봤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 요즘은 부동산 부동산 하니까 지금 온통 관심이 그쪽인데 앞으로 이 AI 기술이 건설산업도 마찬가지고 교통산업도 마찬가지고 이 AI 기술에서 뒤처지는 순간 건설산업도 그렇고 교통산업도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차 테스트를 강남에서 몇 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 모릅니다.

**○손명수 위원** 3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야에 차 하나도 안 다닐 때. 이걸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도 이번에 국토부는 주로 경제 살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 추경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 가지 모든 분야가 앞으로는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

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특히 교통산업, 자율자동차, 하늘의 UAM도 마찬가지로 이합니 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느 한 도시를 우리도 지정을 해서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고 국토부가 거기에 모 든.....

사실 이게 관련 업무거든요. 다른 부처에서 좀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뚫고 영상 데이터, 원본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한 경찰청과의 협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빨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테 슬라 수입해서 타고 바이두 수입해서 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는 메이저 기업인데 현대차에도 좀 더 강력하게 투자를 촉구해야 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특히 돈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허가 문제는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예산도 필요하면, 사실 이번 추경에서라도 태웠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관님, 한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모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두어 달 전에 전 고속도로 노선의 자율차 시험 구간으로, 종전에는 일부 구간만 자율차 운행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었는데 한 두 달 전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전 구간을 다 오픈한 정도가 현재 최근의 성과입니다. 성과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새 정부가 AI를 굉장히 큰 정책 화두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발전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야에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명수 위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 그런게 아니고.....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손명수 위원**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 LA, 특히 텍사스의 오스틴 이런 여러 도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실무자들도,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이걸 관계부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어도 하나의 도시를 정해야 돼요, 전국을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우한처럼 우리나라에 적정 규모의 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우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한 말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그 권한에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는 각 위원들이 표현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회의 진행에 맞는 것인지도 위원장님께서 다 판단해서 제지도하실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언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그 부분을 지시하고 지휘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의를 하시면서 하는 거는 위원장님의 권한을 많이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 상호 간에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간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각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존중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6개 사업 1조 6575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서도 특히 더 지방은 어렵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6개 사업 중에서 강원도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송기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경제 지표에서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더 어렵지요. 건설사 여러 개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부도가 나고 그런 사정인데 그 와중에 왜 하나도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한 30년간의 숙원 사업이고 이제 겨우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예타가 통과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1년 정도 걸리고 그게 끝나야지만 실시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아무 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1년이나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강원도 업체로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당장 저희 지역에 있는 봉양-신림 간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멈춰 있어요, 5월 달부터.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 이상 더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강원도 지역에는 건설경기가 나아질 동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이런 게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의 경우에 조기 착공이 필요할 수 있고 당연히 상당히 요청이 되는데 그것을 1년 2년 늦춰지는 결과를 이 추경으로 낳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지만 예산소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를 더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원주는 좀 낮지만 영월·삼척 이쪽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서 이 부분은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경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거 위주로 편성하던 관행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씨앗을 미리 뿌려 놓아야 다음에 또 수확이 되는 거라서 아까 박용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설계비라든지 또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조사비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미리미리 진행될수록 빨리 뒤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논리를 구성을 해서 재정 당국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SOC 사업을 최대한 많이 늘리자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그런 지적과 궤를 같이 해서 저희 국토부가 그렇게 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2차 추경 사업 중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환매 조건부 매입을 시행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 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미분양이 많아서 해소책으로 도입되었던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매입가 대비 크게 상승하는 환매가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질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했던 게 HUG가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건설사에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낮추어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관계부처 간에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준공 전 미분양이고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데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데요. 지방의 경우에 준공 전 미분양은 사실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정부가 적



극적으로 나서고, 그중의 하나가 현장에 가보면 취득세하고 양도세 감면해 달라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기재부 등 세제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가 좀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PF 선진화 앵커리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자금 경색을 회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지난번 정무위에선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서 더 어려운 지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전국에 균형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사업 계획을 좀 실효성 있게 구체화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운영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 제천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오늘 오시지 않은 임태영 위원도 계속 강조하셨는데, 현재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 계획에는 대한민국 철도의 요충지이자 충북선 종점 역할을 해 온 제천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제천역이 기존 충북선의 종점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속화 노선 계획에 제외돼 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이동 편의성 그리고 지역민의 수도권 접근성, 환승 효율성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임태영 위원님께서 제천역 경유를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국토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라서 아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고 또 조기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은 너비스(nervous)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잘못된 게 있다면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유감과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기왕 간사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대 위원이 얘기할 때 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사실 여야 입장이 있어서 그 입장대로 때로는 공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와,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문제와 다른 개인 위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가지고 와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기왕 위원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조금 불편하신 게 있었으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우리 간사님께서 사과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재위에 있다가 국토위에 오면서 일단 국토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열린 그런 상임위이고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상임위다 이렇게 알고 왔는데 오늘 첫 회의인데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도 그런 게 있었고, 김정재 위원님 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존중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을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불용이 됐겠지요. 불용이 됐지만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불용이 되는 거는 연말에 불용이 되는 건데 연도 중간에 추경으로 삭감되는 거는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예산이 깎였는데 말을 하다 보면 좀 표현이 과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외람됩니다만 위원장님의 권한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적절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위원들 입장이라든지 약간 위원의 질의에 간섭하는 듯한 그런 거는 좀 요령 있게 부드럽게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첫 회의인데요. 앞으로 저도 잘,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윤종균 윤종오 이견태 이소영 이종욱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 ○출장 위원(3인)

염태영 염태영 이연희

#### ○청가 위원(1인)

윤재옥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국토정책관 김지연

공항정책관 김홍락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김정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영철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영세 서범수 윤영석	김종양 배준영 이종욱	국민의힘	2025. 5. 2.

## ○의안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4.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7)

이상 7건 4월 29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1)

4월 30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5)

이상 5건 5월 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5. 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5)

이상 9건 5월 2일 회부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2025. 5. 7.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6)

5월 8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9)

이상 3건 5월 9일 회부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5.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0)

이상 3건 5월 12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6)

이상 2건 5월 13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0)

5월 15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8)

이상 2건 5월 23일 회부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6)

5월 26일 회부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1)

5월 28일 회부됨

####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4)

이상 3건 6월 2일 회부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1)

6월 4일 회부됨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7)

6월 9일 회부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6)

6월 11일 회부됨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6월 12일 회부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6)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7)

이상 3건 6월 13일 회부됨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3)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1)

이상 5건 6월 16일 회부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2)

이상 5건 6월 17일 회부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3)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7)

이상 7건 6월 18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0)

이상 3건 6월 19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7)

6월 20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9)

이상 3건 6월 23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1)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이상 2건 6월 24일 회부됨

**○청원 회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4. 21. 장진영 외 50,98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4)

4월 22일 회부됨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6. 22. 임지혜 외 54,7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6)

6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5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0)

이상 2건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5. 14.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5. 1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5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5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2.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6)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8)

6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3)

6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2025. 6.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6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6. 2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3)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건축법 시행령	제35449호	2025. 4. 15.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제35450호	2025. 4. 15.	대통령령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451호	2025. 4. 15.	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68호	2025. 4. 22.	대통령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69호	2025. 4. 22.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484호	2025. 4. 29.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85호	2025. 4. 29.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89호	2025. 4. 30.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5501호	2025. 5. 7.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5529호	2025. 5. 20.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	2025. 5. 27.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550호	2025. 5. 27.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5551호	2025. 5. 27.	대통령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1476호	2025. 4. 11.	부령
도시철도운전규칙	제1477호	2025. 4. 11.	부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78호	2025. 4. 11.	부령
철도건설규칙	제1480호	2025. 4. 11.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82호	2025. 4. 15.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3호	2025. 4. 24.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4호	2025. 4. 28.	부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85호	2025. 4. 28.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86호	2025. 4. 29.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87호	2025. 4. 29.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88호	2025. 5. 14.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490호	2025. 5. 20.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92호	2025. 5. 30.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9호	2025. 5. 30.	부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422호	2025. 4. 11.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560호	2025. 4. 18.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646호	2025. 5. 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93호	2025. 5. 21.	입법예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6호	2025. 5. 21.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18호	2025. 5. 23.	입법예고